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10월 4주~10월 5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프로젝트 정보

ㅇ 인니 거대 방조제, 해안 보호 사업 착수[1](Bisnis, 10/7)

- 정부는 거대 방조제(Giant Sea Wall) 사업의 일환으로 10월 중 중부 자바주 Demak군에서 맹그로브를 활용한 해안 보호 사업 착수 예정. 인프라 및 지역개발조정부 장관 Agus Harimurti Yudhoyono(AHY)는 인공 구조물과 자연 기반 해법을 연계해 연안 생태계 보전과 해안 보호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 이에 따라 자바북부해안관리청(BOPPJ)이 지정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약 10ha 규모의 맹그로브 숲 조성 예정. 다만 인프라 및 지역개발조정부 기초인프라 조정 담당 Nazib Faizal은 구체적인 사업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힘

- 사업 재원은 국가 예산과 기업의 사회·환경 책임 기금(Dana TJSL[2]) 등을 활용할 계획이나 사업비와 참여 기업은 미정. 향후 구간별 맹그로브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ㅇ 인정부, 주택 300만 호 사업 실적 발표[3](Bisnis, 10/18)

- 인도네시아 정부소통청(Bakom RI)은 프라보워 정부의 주택 300만 호 사업이 6.13일 기준 전국 324,213호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 동 사업은 저소득층 주택 담보 대출(FLPP)과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지원(BSPS)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FLPP 주택의 경우 '25년 278,868호, '26.10.14일 기준 180,600호로 집계

- BSPS 예산은 '26년 40만 호 개보수를 위해 4.76억불(Rp8.59tril)로

---

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1007/45/2010627/proyek-giant-sea-wall-berbasis-mangrove-groundbreaking-oktober-2026
2) TJSL(Tanggung Jawab Sosial dan Lingkungan): 사회적·환경적 책임
3)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1018/47/2013523/2-tahun-prabowo-gibran-program-3-juta-rumah-baru-capai-324213-unit

증가, '25년에는 45,073호에 5,650만불(Rp1.02tril) 배정. 또한 주택 정주부는 9.10일 기준 BSPS 사업 목표를 414,184호로 확대

-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주택 확보 기회를 넓힐 계획. 주택 개보수에 따른 일자리 창출, 건축자재 수요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ㅇ PLN EPI, 中 기업과 WTE 사업 협력 추진[4](Ecobiz Asia, 10/19)

- PT PLN의 자회사인 PT PLN Energi Primer Indonesia(PLN EPI)는 중국 Beijing Geoenviron Engineering & Technology(BGE)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PT Geoenviron Engineering Technology Indonesia(GETI)와 WTE 사업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양사는 폐기물의 종류와 특성, 원료, 폐기물 재생 연료(RDF) 및 WTE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 검토 예정

- PLN EPI 바이오매스 담당 이사 Hokkop Situngkir는 동 협약이 폐기물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 양사는 공급망 구축, 사업 추진 방식 및 관련 시설 건설 가능성도 검토하되, 기술적·사업적 타당성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 후속 사업 추진 여부 결정

- PLN EPI는 현재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활용을 추진 중, GETI는 폐기물 관리 및 재생 연료 제조, WTE 관련 기술·서비스 제공. GETI 기술이사 Li Chenyi는 동 협력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

ㅇ 프라보워 대통령, 산업 고부가가치화 사업 11건 추진[5](Kontan, 10/8)

- 프라보워 대통령은 북말루쿠주 중앙할마헤라 웨다 베이 산업단지(IWIP) 개소식에서 국내외 투자 보호 방침 강조, 동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고부가가치화 사업 확대 계획. IWIP는 니켈 등 광물 가공과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이 이뤄지는 복합산업단지로, 누적 투자액은 200억불(Rp358tril), 고용인원은 10만 명 이상

- 또한 총 102억불(Rp182tril) 규모의 산업 고부가가치화 사업 11건

---

4) https://ecobiz.asia/pln-epi-partners-with-chinese-firm-to-explore-waste-to-energy-projects/
5) https://nasional.kontan.co.id/news/prabowo-pemerintah-jamin-keamanan-investasi-asing-di-indonesia#goog_rewarded

발표, 4건은 준공 후 상업화 단계이며 7건은 건설 중. 프라보워 대통령은 투자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투자를 보호하고 투자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

- 동 행사에서는 인도네시아산 전기차 배터리 첫 수출 진행, 정부는 이를 니켈 산업 고부가가치화와 국내 산업역량 강화의 성과로 평가. 향후 IWIP를 기반으로 자원 가공부터 배터리 소재 생산까지 국내 산업기반 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 지속 목표

ㅇ 인니·러시아, 할마헤라섬 부유식 원전 도입 추진[6](Bisnis, 10/19)

-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Rosatom과 인도네시아 기업 PT Pembangkit Listrik Nuklir는 북말루쿠주 할마헤라섬에 총 200MW 규모의 부유식 원자력 발전설비 2기 도입 예정, 전력 공급에 합의. 동 협약은 '26.10.1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에너지 주간(Russian Energy Week)에서 체결

- Rosatom 대표 Alexey Likhachev는 동 협약이 부유식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외에 공급하는 세계 최초의 수출 협약이라고 설명. 최근 프라보워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힘

- PT Pembangkit Listrik Nuklir 대표 Yudi Utomo Imardjoko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기업의 핵심 목표이자 국가 투자자로서의 책무임을 강조. 동 사업을 통해 할마헤라섬의 전력 공급 기반 확충,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

2. 주요 기업·기관 동향

ㅇ Danantara,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및 공동투자 추진[7](Kompas, 10/8)

- Danantara는 데이터센터 산업 확대와 글로벌 기술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 사업의 조속한 개발 지원, 전력·용수와 관련한 규정 정비

6)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1019/44/2013661/ri-rosatom-kerja-sama-proyek-pltn-terapung-untuk-pasok-listrik-halmahera
7) https://money.kompas.com/read/2026/10/08/083708226/danantara-dorong-investasi-data-center-siapkan-skema-co-investment

추진. Danantara 글로벌 대외관계·커뮤니케이션 담당 Pahala Nugraha Mansury는 Danantara Investment Management(DIM)가 디지털 인프라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검토 중이라 밝힘

- 또한 정부와 함께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와 지원제도를 정비하여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대형 기술·클라우드 기업과의 협력 기반 확대 목표. 데이터센터는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확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해 투자 환경 개선 계획

- Danantara는 글로벌 투자자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투자 방식도 마련, 투자금 운용뿐 아니라 사업 공동참여까지 확대 예정.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와 국내 투자 환경 개선 지원 방침

○ Mitsubishi Power, 지열발전소 설비 개선 및 추가 협력 추진[8](Dunia Energi, 10/22)

- Mitsubishi Power는 Star Energy Geothermal Darajat II가 운영하는 Darajat 지열발전소 3호기의 설비 개선 완료, 발전 재개. 발전 용량은 기존 121MW에서 129MW로 8MW 증가해 단일 발전 기준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지열발전 설비로 등극

- 동 사업은 일본 나가사키에서 제작한 증기터빈을 활용한 설비 개선 사업으로, Mitsubishi Power가 설계·제작 및 설치 지원, 현지 자회사 PT Mitsubishi Power Indonesia가 턴키 방식으로 수행.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탈탄소화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기여할 전망

- Mitsubishi Power와 Star Energy Geothermal Darajat II는 기념식에서 기술 검토 및 협력 협약 체결. 향후 터빈 출력 향상과 발전소 신뢰성 및 가동률 제고 방안 공동 논의 예정

○ PT Nindya Karya, 신수도 건설 PPP 협약 체결[9](Bisnis, 10/15)

- 인니 건설기업 PT Nindya Karya는 신수도(IKN)에 공무원용 공동주택 8개 동을 건설하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협약 체결. 사업부지

8) https://www.dunia-energi.com/mitsubishi-power-dan-star-energy-teken-kerjasama-lanjutan-usai-retrofit-pltp-drajat/
9)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1015/45/2012698/nindya-karya-teken-kerja-sama-pembangunan-8-tower-asn-di-ikn

68,390㎡, 연면적 82,666㎡ 규모로 총 288세대를 공급할 계획

- PT Nindya Karya 대표이사 Firmansyah는 공무원 주거시설 확보가 신수도 내 행정업무 수행 여건과 주거환경 개선에 중요하다고 설명. 준공 후 시설 운영·관리는 자회사인 PT Nindya Estate Management가 담당할 예정

- 또한 PT Nindya Karya 사업개발·인사 담당 이사 Eduard Batubara는 PPP 방식으로 정부와 협력하여 주요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사업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방침

ㅇ 미국, 인니 AI 데이터센터 투자 가능성 주목[10] (Bisnis, 10/29)

- 미-아세안 기업협의회(USABC)는 동남아시아의 AI 기반 데이터센터 개발 확대와 미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가능성 주목. USABC 전략사업 및 아세안 담당 이사 Angga Antagia는 디지털 인프라 투자 유치를 위한 동남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언급

- 또한 동부 자바의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미국 기업의 참여와 관련된 공식적인 정보는 없으나, 일부 미국 기업은 현재 데이터센터 인프라 개발에 투자 중이라 밝힘. 인도네시아에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했거나 구축 예정인 미국 기업은 Amazon Web Service, Microsoft, Equinix, EdgeConneX, Google Cloud, Digital Realty, WowRack, Akamai, CloudFlare, Braze, Anaplan Unlimited 등

3. 정부 정책동향

ㅇ 프라보워 정부 2년, 투자실적 2,174억불 및 고용창출 548만 명 달성[11] (CNN Indonesia, 10/20)

- 투자·다운스트림부 장관 겸 투자조정청(BKPM) 청장 Rosan Roeslani는 프라보워 정부 출범 이후 '24년 4분기부터 '26년 3분기까지 누적 투자

10) https://teknologi.bisnis.com/read/20261021/101/2014440/usabc-buka-suara-soal-peluang-investasi-data-center-ai-oleh-korporasi-as-di-indonesia
11) https://www.cnnindonesia.com/ekonomi/20261020052235-92-1417292/investasi-di-2-tahun-prabowo-tembus-rp3923-t-serap-548-juta-pekerja

실적이 2,174억불(Rp3,923tril)을 기록, 약 548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발표. 지역별로는 자바섬 외 지역이 51.8%인 1,275억불(Rp2,300tril), 자바섬이 48.2%인 998억불(Rp1,800tril)을 차지

- 정부는 산업화 촉진, 고용 확대 및 기술 이전 등의 투자 유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 니켈 가공과 연계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요 사례로 제시. 또한 '위험 기반 사업허가 시행에 관한 정부령 제28호(2025)'에 따라 28개 부처 및 기관과 인허가 연계

- 이와 더불어 관계 부처가 정해진 기한 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을 시 투자조정청이 허가를 발급하는 '간주 승인 제도(fiktif positif)'를 통해 약 328건의 인허가 발급.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인허가를 위해 노동부 및 이민교정부와 공동 부령 체결

ㅇ 인니, '28년 인프라 예산 수요 138.5억불 예상[12](Bisnis, 10/20)

- 공공사업부는 '28년 인프라 개발 예산을 138.5억불(Rp249.29tril)로 제시. 공공사업부 장관 Dody Hanggodo는 예산 편성 시 정부 국정과제인 Asta Cita와 공공사업부의 PU608[13] 정책목표를 반영, 재난 대비 및 재해 복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주요 추진 전략은 국가 핵심과제 이행 가속화, 긴급상황 대비 및 재해 복구 강화, 주민 참여형 인프라 사업 지속, 부처 및 기관 간 사업 연계 등. 예산 수요는 '25~'29년 공공사업부 전략계획 122억불(Rp219.6tril)과 '26~'28년 수마트라 재해 복구 및 재건 가속화 계획 16.5억불(Rp29.69tril)을 반영해 산정

- 공공사업부 지역인프라개발청(BPIW) 청장 Adenan Rasyid는 인프라 지원 대상이 분야별로 식량·용수·에너지 292곳,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 75곳, 인적자원 개발 21곳, 다운스트림화 및 산업화 23곳, 농촌 경제성장, 빈곤 퇴치 및 자연·문화환경 보존 12곳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힘

---

1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1020/45/2014179/kebutuhan-anggaran-infrastruktur-2028-capai-rp249-triliun-apa-saja-proyeknya
13) PU608: 공공사업부(PU)가 투자 효율성 강화(ICOR 6 미만), 빈곤율 0%, 경제성장 8%를 달성하고자 추진 중인 정책목표

○ 프라보워 대통령, PLN의 경영혁신 지시[14](Tempo, 10/14)

- 프라보워 대통령은 Danantara에 국영전력공사(PLN)의 경영혁신을 촉구, 태양광발전 100GW 확대 방안도 논의. Danantara CEO Rosan Roeslani는 대통령이 특히 PLN의 사업모델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

- 이에 따라 Danantara는 PLN과 협력해 사업모델과 경영 체계 전반 점검,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정부의 전력 보조금 부담 완화 계획. 또한 대통령 지시에 따른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

- 아울러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PLN의 대응체계와 예비 전력 공급 계획도 점검할 방침. 전국 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공급 차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 보완 예정

○ 인니 다운스트림 투자액 265억불 달성, 78% 자바섬 외 지역으로 집중[15](Bisnis, 10/20)

- 투자・다운스트림부 장관 Rosan Roeslani는 '26.1~9월 다운스트림 투자액이 약 265억불(Rp480tril)로 전체 투자 실적의 31.2%이며, 지난해 대비 11.3% 증가했다고 발표

- 분야별로는 광물 부문이 185.6억불(Rp335.1tril)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플랜테이션・임업 46.3억불(Rp83.6tril), 석유・가스 29.9억불(Rp54tril), 해양・수산업 4억불(Rp7.3tril) 순. 광물 투자는 니켈, 철강, 구리, 규사, 보크사이트 등

- 지역별로는 자바섬 외 지역이 206.7억불(Rp373.1tril)로 전체 다운스트림 투자의 약 78% 차지, 자바섬은 59.2억불(Rp106.9tril)로 전체 대비 약 22% 기록

○ 인니, AI 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강조[16](Rri, 10/13)

- 통신디지털부 차관 Nezar Patria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안정적 전력 공급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 디지털 인프라는

14) https://en.tempo.co/read/2121595/prabowo-mandates-danantara-to-speed-up-pln-transformation
15)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1020/44/2014000/investasi-hilirisasi-tembus-rp480-triliun-78-mengalir-ke-luar-jawa
16) https://rri.co.id/voice-of-indonesia/national/2808057/indonesia-urges-energy-ready-infrastructure-for-ai-growth

연산 능력, 전력 공급, 통신망, 기술 활용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축해야 하며, 전력과 용수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

- 이에 데이터센터와 광섬유 통신망, 해저케이블, 이동통신망을 확충하는 한편, AI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질병 진단 및 농민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등 지원 계획. 또한 니켈, 보크사이트 등 풍부한 광물을 활용, 반도체와 기술 부품 산업 육성과 더불어 국내 가공·제조 분야 확대 모색

- 정부는 국가 AI 개발 지침 마련, 디지털 인프라 투자, 통신망 확충,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AI 산업기반 정비 계획.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 주권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발리 특별경제구역, AI·반도체 연구개발 거점 육성 계획[17](Antara, 10/11)

- 정부는 발리 특별경제구역(Kura-Kura Bali SEZ)을 AI·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 중국과의 기술협력 확대 모색. 경제조정부 통상·디지털경제 담당 차관보 겸 국가경제특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 Ali Murtopo Simbolon은 칭화대학교 동남아시아센터(TSEA)가 물리학·신경과학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도입, 반도체 포럼을 출범했다고 설명

- '26년 2분기 기준 인도네시아 전국 25개 경제특구는 약 23,798ha 규모로, 누적 투자액 207억불(Rp370.2tril), 입주기업 481곳, 고용 283,000명 이상 기록. 입주기업 중 중국 기업은 97곳으로 집계

- 발리 특별경제구역은 '26년 상반기 누적 투자액 약 1억불(Rp1.8tril), 고용 2,173명, 방문객 131,657명 기록.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두 나라 쌍둥이 산업단지(Two Countries Twin Parks, TCTP) 협력을 통해 자원과 투자재원, 기술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디지털 인프라 협력 확대 추진

○ 인정부, AI 데이터센터용 용수 확보 및 공급 체계 마련[18](Bisnis, 10/12)

17) https://en.antaranews.com/news/435010/indonesia-positions-bali-sez-as-ai-and-semiconductor-hub
1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1012/45/2011906/pemerintah-siapkan-infrastruktur-air-untuk-dukung-pusat-data-ai

- 정부는 AI 데이터센터의 용수 수요에 대응, 댐과 저수지 등 기존 수자원 시설 활용 검토. 인프라 및 지역개발조정부 장관 Agus Harimurti Yudhoyono(AHY)는 가정 및 농업·축산 용수 공급 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공급 계획 마련 필요성 강조

- 정부는 데이터센터 지역 용수 수요 예측 및 수자원 이용에 대한 국가 간 경쟁에 대비해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 예정. 다만 데이터센터 용수 공급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용수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

- 통신디지털부 장관 Meutya Hafid도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앞서 지역별 전력 공급 여력과 서버 냉각 용수 확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전력과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종합적인 인프라 확보 필요성을 강조

ㅇ 인니, Trans Sumatra 유료도로 재원 조달 방식 개선 검토[19] (Bisnis, 10/13)

- 정부는 낮은 교통량 및 통행료 수입으로 인해 Trans Sumatra 유료도로의 재원 조달 방식 개선 검토. 유료도로규제청(BPJT)은 초기 투자 부담 감소 및 수익 안정성 증가를 위해 PBBL[20] 방식 도입 추진

- 총연장 2,854km로 계획된 Trans Sumatra 유료도로 중 16개 구간(1,760km)은 실시협약 체결 완료 및 '26.8월 기준 982km 운영 중, 254km는 건설 중으로 '27년 완공 목표. 2단계 사업은 총 892km 규모로 Palembang-Betung, Betung-Jambi, Rengat-Pekanbaru, Pekanbaru-Kota Kampar 등 주요 구간 건설 추진 중

- 인도네시아 하원 국가재정책임위원회(BAKN)는 일부 구간의 실제 교통량과 통행료 수입이 당초 예상의 약 50%에 그쳐 운영비와 투자 부담 증가 지적. 이에 사업성 분석 강화와 함께 산업단지, 생산·물류거점과 유료도로 연계 및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업구조 마련 촉구

---

19)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1013/45/2011807/utak-atik-skema-investasi-jalan-tol-trans-sumatra

20) PBBL(Pembayaran Berkala Berbasis Layanan): 정부가 해당 시설이 약속된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한 후 주기적으로 자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

○ 인니·이집트, 경제협정 추진 및 전략적 협력 확대[21](Bisnis, 10/12)

- 인도네시아와 이집트는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추진, 공동투자기금 조성을 검토. 압델 파타 엘 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계획,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 면제, 통계 분야 협력, 해양·수산 협력 등 4건의 MOU 체결

- 또한 양국은 방위산업 협력과 인력 양성, 공동 훈련 및 교육 교류 확대에 합의, 이집트는 중동 UN 평화유지활동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에 협력 의사 표명. 교육 분야에서는 Al-Azhar 대학교와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 교류, 대학 간 협력, 공동 연구 및 의학·공학·과학 분야 장학 기회 등의 확대 추진

- 이외에도 양국은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 지지 및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규탄,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협력. 아울러 중동 지역 긴장 완화와 국제법 존중,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분쟁 해결 촉구

○ Danantara, 이집트에 팜유 정제시설 건설 및 공동투자 추진[22](Kompas, 10/13)

- Danantara CEO Rosan Roeslani는 이집트에 팜유 정제시설 건설 추진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모색 중, 이집트 정부가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 이집트는 인도네시아산 팜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현지 정제시설 건설을 통한 팜유 분야 협력 확대 기대

- 또한 Danantara는 이집트 국부펀드 운용기관과 공동투자 추진 계획, 구체적인 투자 분야와 사업 일정은 미공개.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추진 및 양국 전략사업 투자를 위한 공동투자기금 조성 논의

○ 인니·동티모르, 투자보장협정 체결 통한 경제협력 확대[23](Antara, 10/16)

---

21) https://kabar24.bisnis.com/read/20261012/15/2011718/kemitraan-strategis-poin-penting-pertemuan-bilateral-indonesia-mesir
22) https://go.kompas.com/read/2026/10/13/043012174/danantara-reveals-plans-to-build-palm-oil-refinery-in-egypt
23) https://en.antaranews.com/news/435829/indonesia-timor-leste-seal-investment-treaty-to-expand-economic-ties

-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는 '26.10.15일 자카르타에서 양자 간 투자 보장협정(BIT)을 체결,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인도네시아 투자·다운스트림부 장관 겸 투자조정청장 Rosan Roeslani와 동티모르 부총리 겸 경제조정 담당 장관 Francisco Kalbuadi Lay가 서명, 양국은 '23년 합의를 바탕으로 '24.11월 협상을 시작해 '25.8월 법률 검토 완료

- 동티모르에는 인도네시아 민간기업 약 120곳이 진출, BRI, Bank Mandiri, Pegadaian, Telkomsel, Pertamina International Timor, Waskita Karya, PT PP, Adhi Karya 등 주요 기업도 현지 사업 및 인프라 사업에 참여. 인도네시아는 자동차·부품, 전분 가공품, 동식물성 유지 등을 약 1.5억불(Rp2.71tril) 규모로 수출 중, 동티모르는 커피, 차, 향신료, 기계류 등을 인도네시아에 수출

- 양국은 자원 고부가가치화, 제조업, 인프라, 재생에너지, 물류, 부동산, 디지털 기술 분야 등 투자 협력 확대 및 정보 공유, 기업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 동 협정을 통해 투자 절차 개선과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 경제협력 확대 추진 예정

○ 인니·세르비아, 산업 및 식량·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24](Antara, 10/14)

- 인도네시아와 세르비아는 '26.10.10일 제5차 양국 협의 포럼에서 산업 고부가가치화, 경제 및 식량·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 확대 합의, 또한 비동맹운동 창설국으로서 주권과 영토 보전 원칙 재확인. 인니 외교부 미주·유럽 담당 총국장 Grata Endah Werdaningtyas는 정부의 8대 국정과제인 Asta Cita 소개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으로서 세르비아에 광물 탐사와 전기차 공급망 관련 산업 협력 제안,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도 설명. 양국 교역액은 '21~'25년 연평균 20.62% 증가, '25년 53.6백만불(Rp0.96tril) 기록

- 세르비아는 신수도 및 거대 방조제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 인도네시아

24) https://en.antaranews.com/news/435413/indonesia-serbia-agree-to-deepen-cooperation-in-trade-food-energy

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유럽 시장 진출 거점 역할을 제안. 이외에도 양국은 세르비아 내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 간 협력 협정 체결 검토

○ 인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투자 확대 추진[25](Antara, 10/13)

- 식량조정부 차관 Hanif Faisol Nurofiq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녹색투자 유치 강조. 주요 투자 분야로 청정에너지, 저탄소 산업, 폐기물 관리, 친환경 교통수단과 함께 친환경 건축, 지속 가능한 농업, 맹그로브 숲·이탄지·산림 및 연안 지역의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제시
- 현재 정부는 대통령령을 활용, 녹색투자 기회 확대와 투자재원 조달 체계 마련을 통해 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또한 녹색투자를 통해 국민 생활 수준의 질적 개선 계획
- 이외에도 녹색투자는 '35년까지의 제2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에도 기여할 전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과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청정에너지 및 저탄소 산업 육성 방침

4. 녹색산업 동향

○ 프라보워 정부 2년, 재생에너지 개발 부진[26](Bisnis, 10/21)

- 프라보워 정부 출범 2년간 인도네시아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부진한 상황.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3,600GW 이상이나 설비용량은 16GW 이며, 태양광발전 100GW 구축 목표도 석탄 중심의 전력구조, 불확실한 규제, 금융 조달 제약 및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추진 난항
- 반면 석유·가스 정제 및 바이오연료 분야에서는 상대적 진전. 발릭파판 정유시설 확장으로 완제품 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B50 바이오디젤 도입 시 경유 수입 감소와 외환 절감 기대. 다만 국내 원유 생산량은 일일 약 60만 배럴로 수요량인 160만 배럴에 비해

25) https://en.antaranews.com/amp/news/435289/indonesia-seeks-more-green-investment-to-support-clean-energy
26)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1021/44/2014409/2-tahun-prabowo-gibran-pengembangan-ebt-masih-lemah

현저히 낮은 상황

- 또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확대 역시 국내 생산능력 부족과 식량 생산 및 토지 이용과의 상충 문제에 직면. 에너지 자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유치, 일관된 규제 체계 마련 및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 필요

ㅇ 인니 산불 확산, 산림 탄소배출권 사업에 피해 우려[27](Nikkei Asia, 10/19)

- 인도네시아에서 11년 만에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의 산림, 이탄지 약 22만 5,000ha를 보전하는 탄소배출권 사업 4건에 피해 우려. 동 사업의 탄소배출권은 약 1,730만 톤이며, 거래액은 약 2억 7,800만불(Rp5tril)로 추산. 이상 고온과 강수 지연, 슈퍼 엘니뇨에 따른 산불 확산으로 산림 보전 및 온실가스 감축 차질 예상

- 중앙 칼리만탄주 Katingan Mentaya 사업지에서는 보호구역 순찰, 열화상 드론 감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대 설치, 수로와 댐을 통한 이탄지 수분 유지 작업 진행 중. 다만 산불 악화 시 사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저하 우려

- '26년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당해 탄소배출권 발행량에서 차감할 계획. 또한 오랑우탄과 같은 멸종위기종, 생물다양성, 주민 주거·생계, 연구 활동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림부의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 필요성 강조

ㅇ 인니, 지열에너지 개발 가능성 지역 14곳 검토[28](Bisnis, 10/13)

-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서자바주 Kuningan군을 포함한 14곳의 지역에서 지열에너지 개발 검토 중. 에너지광물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국장 Eniya Listiani Dewi는 후보지 목록은 있으나 정식 개발 구역과 탐사 대상지는 미정이라고 밝힘

---

27) https://asia.nikkei.com/spotlight/environment/indonesian-wildfires-threaten-forest-carbon-projects
2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1013/44/2012086/kementerian-esdm-jajaki-geothermal-di-14-lokasi-termasuk-di-kuningan

-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제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에 대응, 국내 에너지원 활용을 위해 지열에너지 개발 장려. Kuningan군 군수 Dian Rachmat Yanuar는 중앙정부에 사업계획 및 추진 단계 등 진행 상황 공유 요청

ㅇ 인니, Kamojang 지열발전소 통한 지열에너지 활용 계획[29](Bisnis, 10/15)

- 정부가 지열에너지 개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통령 특별보좌관 Tina Talisa는 서자바주 Kamojang 지열발전소의 용수 관리 현황 점검. 발전 용수는 지하 약 2,000m 깊이의 지열 저류층에서 확보해 일상생활 용수와 구분된다고 설명

- 또한 Pertamina Geothermal Energy(PGE) Kamojang 연구실장 Teza Permana는 지하 마그마의 열로 암석 틈새의 물이 가열돼 지열 저류층이 형성되며,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한다고 설명. 발전 용수는 별도의 주입정을 통해 지하로 되돌려 보내며, 생산정과 주입정을 분리해 지열 저류층 관리 및 발전에 필요한 지열 에너지의 안정적인 활용 도모

ㅇ PLN EPI · FlexiH, 바이오매스 기반 수소 개발 검토[30](Bisnis, 10/21)

- PT PLN Energi Primer Indonesia(PLN EPI)는 미국 청정에너지 기술 기업 FlexiH Inc.와 바이오매스 가스화 기술을 적용한 저탄소 수소 생산시설 개발 검토를 위해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양사는 바이오매스 공급 여건, 수소 구매처 확보 가능성 및 투자 기회 정보 교환 계획

- FlexiH는 수소, 암모니아, 저탄소 연료 및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모듈형 E-Refinery 기술을 개발 중, 플라즈마 가스화 기술로 수분 함량이 높은 바이오매스 등을 고부가가치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 PLN EPI 바이오매스 담당 이사 Hokkop Situngkir는 동 협약이 후속 검토의 법적 기반이라고 설명, FlexiH CEO Nataraianto Indrawan 역시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바이오매스 자원 주목

- 양사는 해당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사업 경제성을 평가한 뒤 후속

29)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1015/44/2012818/pemerintah-kejar-potensi-panas-bumi-ri-capai-232-gw-lewat-pltp-kamojang
30) https://hijau.bisnis.com/read/20261021/652/2014437/pln-epi-gandeng-perusahaan-as-jajaki-pengembangan-hidrogen-berbasis-biomassa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 동 협력을 통해 에너지원 다변화, 에너지 자립 강화 및 국가 탈탄소화 지원 목표

○ 신수도 관련 현지 언론보도 종합

- 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 대표단, 신수도 현장 방문[31](CNBC Indonesia, 10/11)

- 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REAAA) 제127차 운영위원회 참석자 42명이 '26.10.5일 신수도(IKN)를 방문, 도시계획, 도로망 및 교통 연결성 확보 현황과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계획 점검. 방문단은 한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구성

- 신수도청 청장 Basuki Hadimuljono는 방문단을 환대하며 신수도 개발이 '25~'29년 2단계 사업에 진입했다고 설명. 또한 포레스트 시티, 저류형 도시, 스마트 도시 조성계획과 함께 발릭파판, 사마린다, 누산타라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계획 소개

- REAAA 측은 도로망 구축에 필요한 토질 관리, 강우 대응, 비탈면 안정성 확보와 향후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자료 관리 등 지반 관련 과제 논의. 호주 대표는 자연환경 보전과 신속한 인프라 확충을 함께 고려한 신수도 개발에 긍정적 평가

- 인니 신수도청, 공무원 공동주택 관련 민간 투자협약 체결[32](Bisnis, 10/15)

- 신수도청(OIKN)은 공무원 공동주택 8개 동(288세대) 및 민간사업 5건에 총 2.08억불(Rp3.73tril)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공동주택 건설에 1.46억불(Rp2.62tril), 식품·상업·식음료·가구·스포츠 시설 등 민간사업에 약 62백만불(Rp1.11tril) 투입 예정

- 민간사업에는 PT Berdikari, PT Java Teak Indo, PT Indonesia Belt Road High Tech Development Park, PT Laziz Nusantara Group, PT FYP Karya Perdana가 참여. PT

31)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61010225021-4-775019/42-delegasi-dari-asia-australia-datangi-ikn-kata-katanya-tak-terduga
3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1015/45/2012842/oikn-teken-komitmen-investasi-baru-rp37-triliun-di-ikn-cek-bocorannya

Indonesia Belt Road High Tech Development Park는 정부핵심 구역(KIPP)에 3.57ha 규모의 Grand Vista Nusantara 상업단지 조성을 위해 55.7백만불(Rp1tril), 국영기업 PT Berdikari는 닭고기 생산 및 가공 사업에 약 9.9백만불(Rp177bil) 투자

- PT Laziz Nusantara Group은 식음료 분야에 0.56백만불(Rp10bil), Teras Padu 스포츠 시설에는 1.1백만불(Rp20bil) 투자 예정. 신수도청은 주거・상업・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 지역 일자리 창출과 동칼리만탄 경제 활성화 목표

□ 중점 프로젝트 동향

① BSD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 (**사 업 비**) 미확정
- (**사업내용**)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샵하우스)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 1차(~`25.8) 및 2차 연장(~`26.2.15) - 토지가 협상, 자체 FS 완 – FS 완료, 주주간협약 문구 협의중
- **(`26년 센터목표)** `27년초 투자심의부의 준비

ㅇ (주요동향) SML 사업계획변경, 대우건설 투자구도변경 상호제안

② 칼리만탄 지속가능 우드펠릿 공급망 구축

< **사업 개요** >

- **(원개발사)** Innovative Energy Solution (IES)
- **(참여기업)** 남동발전 (Offtaker), 대아이앤씨 등
- (**사 업 비**) 미확정
- (**사업내용**) 우드펠릿 생산설비 건설·운영, 남동발전 등에 장기 공급
- (**추진현황**) 조림지 토지용도 허가 취득 (`23.5) - 원개발사 IES (싱가포르) 설립 (`24.10) - 인니 자회사 설립 (`25.1) - KIND 사전검토위 통과 (개발비 및 MOU 체결 승인) (`26.3) - KIND 자금지원 FS 진행중
- **('26년 센터목표)** FS 결과 검토 / 결과에 따라 투자심의 부의

ㅇ (주요동향) FS 용역수행 및 후보대주단 협의 확대 계속

③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아르고 마눙갈 (Argo Manunggal, 마루베니와 산단 성공적개발사례 보유)
- **(참여기업)** Gaya (GS건설 싱가폴법인), INA(예상) 등
- (**사 업 비**) 미확정
- (**사업내용**) 수방 지역* AMG가 원소유주와 독점 가계약중인 대규모 부지에 전기차 제조업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AMG-Gaya 전반적 협력 MOU 체결 - `25.10월 GS 사전사업심의 통과, DD비용 승인 - GS DD 진행중
- **('26년 센터목표)** DD 완료 및 투자심의 부의여부 검토

ㅇ (주요동향) AMG 토지실사 계속 / 재무타당성 보고서 초안 검토

④ 까얀1 수력발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인니전력공사(PLN)
- **(참 여 사)** 원개발사(KHE), 삼성물산, 수자원공사(예정) 등
- (**사 업 비**) 약 27억불 (EPC 약 15억불)
- (**사업내용**) 900MW 수력발전 댐 건설후 30년간 운영, 전력판매 수익창출
- (**추진현황**) 원개발사 제반 인허가 취득 (~`20) - 중기전력계획(RUPTL) 동사업 포함 (`25.5) - 삼성물산-KHE JV DPT 등록 (`25.12) - `26.3 KIND FS 신청
- **('26년 센터목표)** FS 지원대상 선정 (完) / FS 수행

ㅇ (주요동향) KIND 컨설팅 FS 용역 계속 / 특이사항 없음

⑤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투자의결 完)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SM플러스 (시나르마스그룹 계열사) – 한투그룹, KIND, S펀드 출자 싱가포르 SPC
- (**참여기업**) LG CNS (현지법인 통해 장비공급·설치, 운영, 직접사용 및 재판매)
- (**사 업 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본사 투자의결(`25.9.15) / 골조준공식 개최(`26.6) / 수요가 협상중
- **(`26년 센터목표)** 준공 및 운영준비 완료 / 후속안건 발굴

ㅇ (주요동향) 준공식 거행 / 2차사업 협의